

네이버-카카오, 2분기 호실적에도 긴장 고조 “겨울이 온다”

입력 2022.08.07. 오후 2:19 기사원문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2분기 최대 실적을 거뒀음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고삐를 죄고 있다. 거리두기 해제로 코로나19 팬데믹 특수이 사라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올해 2분기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을 올리며, 실적 악화를 예고했던 시장 전망을 비껴갔다. 양사 모두 여러 악재를 뚫고 콘텐츠 부문 성장에 힘입어 호실적을 기록했다.

네이버는 한국국제회계기준(K-IFRS) 기준 2022년 2분기 매출 2조458억원, 영업이익 33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동기대비 각각 23%, 0.2% 늘어난 수치다. 매출은 시장전망치(컨센서스)를 넘어섰고, 영업이익은 하회했다. 특히, 매출은 라인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분기 2조원을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인터뷰] '구글' 출신 개발자, '아임웹'에서 소통 외치는 이유

입력 2022.08.07. 오후 4:00 · 수정 2022.08.07. 오후 5:04 기사원문



유다정 기자 >



쇼핑몰 솔루션 기업 '아임웹'은 올 들어 구글 출신 개발자 이동휘 씨를 최고기술책임자(CTO)로 영입했다. 현재 아임웹은 이동휘 CTO를 필두로 개발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북미 진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기업을 경험한 이동휘 CTO는 아임웹에서 어떤 목표를 꿈꾸고 있을까.

잘 만든 엔진, 소통에서 나온다

이동휘 CTO에게는 '구글코리아 제 1호 개발자'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컴퓨터 비전 엔지니어로 개발 분야에 발을 들인 이동휘 CTO는 구글 본사(미국)에서 웹 프론트엔드, 검색 인프라, 데이터 파이프라인 등을 개발하며 노하우를 쌓았다. 구글코리아 설립 후 2년간 근무했던 이동휘 CTO는 다시 구글 본사로 건너가 실전 감각을 익혔다. 구글을 떠나 '포티투닷'이라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에 몸을 담았던 이동휘 CTO는 지난 1월 아임웹의 문을 두드렸다.

그는 어느 분야에서나 자유자재로 개발할 수 있는 '풀스택 개발자'이자 실리콘밸리 노하우를 경험한 천재개발자의 풍모를 보이면서도 '협업'과 '팀 워크'를 철칙으로 내세웠다.

"소위 말하는 '천재 개발자'는 일종의 미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천재적인 개발자가 하루 만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업계를 바꾸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소프트웨어는 잘 훈련된 엔지니어들이 정해진 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소통할 때 만들어지더라고요"

이동휘 CTO는 구글 근무 시절을 회상하며 "구글의 검색엔진을 고도화할 때 수천명의 개발자가 공백 하나까지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코딩을 한다"며 "주석을 넣을 때도 코드를 설명을 하고, 놓친 이유나 발전 방향을 코멘트로 남길 만큼 철저한 규칙 안에서 작업이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통의 방법으로 '동료 평가'(피어 리뷰)도 강조했다. 동료 평가는 프로젝트를 같이 한 직원끼리 서로 피드백을 주는 방식이다.

이동휘 CTO는 "(구글에서) 8명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1인당 책 한 권 분량의 피드백이 나온다"며 "협업과 소통을 통해 직원 개개인이 지속 성장할 수 있었고, 이것이 지금의 구글을 만든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